

# 불교계, 노동자 '끌어안기' 행보

### 조계종, 노동위 8월 말 발족... 위원장 종호 스님 예정

정리 해고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지친 노동자들을 감싸 안기 위한 불교계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14일 부실장 간담회에서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최종 점검했다. 21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불교계 최초의 종단 산하 노동위원회 발족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노동위 위원장에는 서울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종호 스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설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대내외적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종령 기구다. 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자성과재건결사추진본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설치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도박 파문 등으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 10명과 사회부장이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열린다.

노동위원회는 △종단 대사회 노동 관련 정책 자문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에 관한 자문 △노동 피해자 긴급 구호 자문 △노동관련

시민 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 △노동관련 연구 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직접 노동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애환을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조계종 자성과재건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범,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오는 8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한다.

결사추진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

### 정책 자문·현안 조정 등 당당

### 29일 노동자 무차대회 개최

### '불교계 발원문'도 발표 예정

듣기 네트워크,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조합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주관하는 이번 무차대회는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법적 노동자가 아닌 학습지 교사와 시민들을 위한 대화마당으로 꾸며진다.

'노동자를 부처님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1부는 희생노동자를 위한 추모 타종 및 묵념으로 시작된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격려사를 할 예정이며, 스님들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저녁 공양을 올린다.

2부 '노동자, 불교를 만나다'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듣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백기안 통일문제연구소장과 쌍용차노조, 청소노동자, 학습지노조 등이 참가한다.

해고 노동자들의 공연도 마련된다. 쌍용자동차노조 율동패 '씻밥'과 중외제약 및 골든브릿지증권 해고노동자 합동율동패, 국립오페라단 해고노동자 합창단 등이 직접 나서 공연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무차대회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불교계 서원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결사추진본부는 "해고의 공포와 무자비한 폭력,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행복마저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를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불교계에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용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노동 문제'는 불교계 사회참여 중 미흡했던 분야였다. 종단 내 산하 기구로 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시작이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불교계 시민사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장기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만해대상을 수상한 수상자들. 왼쪽부터 독일 쿠트 그리블 시장, 인도 오테니 문수 고신 장관, 르네 뒤몽(두몽) 주교(이상 실천대상), 월주 스님, 캄보디아 지회제거운동가 아키 라(이상 평화대상),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말 사바와 문학평론가 김재홍 명예교수를 대신해 수상한 임둘라흐만 대리대사와 김재돈 대표(이상 문예대상).

## 만해사상 실천 메아리 '세상 울리다'

### 2012 만해축전 12~14일... '공감·상생' 주제로

·겨레사랑을 실천하고 평생 자유·생명·평화 운동에 힘쓴 만해(萬海) 한운운(韓龍雲·1879~1944) 스님을 기리는 2012만해축전이 8월 12일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개막했다.

20여 일 동안의 뜨거운 여름열기 속에 내리는 비처럼 이날 만해축전은 불교·문학인들의 갈음을 해소하는 어울림 한마당이였다.

'공감과 상생'을 주제로 열린 만해축전 시상식에서 평화대상은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키 라, 실천대상은 두몽(르네 뒤몽) 전 천주교 안동교구장, 독일 쿠트 그리블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인도의 오테니 문수 고신 우타라칸드 주 불교부장관이 각각 수상했다.

문예대상의 쿠웨이트 시인 수아드 말 사바와 문학평론가 김재홍 경희대 명예교수는 각각 종교(라마단)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임둘라흐만 주한 쿠웨이트

대리대사와 동생 김재돈 시학사 대표가 대리 수상했다.

축전 기간 동안에는 전국고교생백일장을 비롯해 만해학회와 한국시인협회 등 총 25개 불교, 문학,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열렸다.

시상식에 앞서 11일 밤에는 만해마을 문학단체 주최 행사 '다체'

### 다문화시대 위한 세미나도

다문화시대 위한 세미나도

님의침묵 광장에서 전야제인 '공감과 상생의 시 한마당'이 열렸다. 시인 400여명을 비롯해 가족단위 관람객 등으로 대성황을 이룬 전야제에서 영화감독 임권택, 시인 고은, 배우 강부자, 탁구인 출신 국회의원 이예리사, 가수 유열, 배우 오정혜 등 특별출연자들은 각자 시와 노래로 축전의 밤을 뜨겁게 달궜다.

만해축전 입재식에 앞서 12일 오전에는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이 인제실내체육관에서 전국 고교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산문 부문에 참가한 화성 남양고 3학년 이화인 양이 '변신'이란 산문으로 대상인 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 등을 수상하는 등 46명이 입상했다.

또 지역민과 소통하는 문화의 장도 함께 마련돼 13일 밤에는 인제문화예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인제문화예술인의 밤에서 색소폰 동아리, 천도올림포, 하늘내린 민요회, 휘나리무용단, 인제군합창단, 내린 문학회 등 5개 단체에서의 시낭송, 땃목아리랑, 합창, 무용 등 공연을 펼쳤다.

만해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계속돼 총 77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또 12일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문학사상주간)의 문학콘서트, 13일 '다문화가족 예술제'와 다문화심포지엄 등이 열렸다.

이와 함께 인제군축연구학회 주관으로 19일 북면체육공원에서는 대동축구대회가 열렸으며 13일에는 인제군 게이트볼대회도 인제다목적구장에서 진행됐다.

강원 인제=노덕환 기자

## '승단 범계' 근절방안은?

### 연대회의, 오는 28일 대화마당

청정성 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연대회의와 참여불교제가연대가 종단 개혁안 마련을 위한 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사부대중연대회의와 재가연대는 8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한국불교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진정성과 구체적 실효성을 담보한 개혁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 위한 대화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오는 28일 오후 7시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승단의 범계원인(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선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집행위원장 동출스님과 이수덕 참여불교제가연대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이어 △9월 18일에는 '선계 제도안 마련' △10월 16일에는 '불자의 정치참여 방안' △11월 20일에는 '종법 계계정' △12월 8일에는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청구 및 불자실천 선언'을 주제로 대화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대화마당은 매회 저녁 7시 열린다.

신종일 기자

## 성철·법정 스님 영향력 아직도 크네

### 사시저널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 조사결과

### 법륜·자승 스님 6.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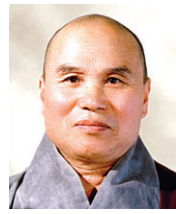
### 혜민 스님 처음 순위권

성철·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이 최근 <사시저널>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종교인 부문에 1~3위에 올랐다. 아직도 고인들의 영향력이 크고, 사회를 이끄는 종교인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번 조사는 <사시저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각계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가장 영향력이 큰 종교인은 김수환 전 추기경이었다. 이어故 법정 스님과故 성철 스님, 조용기 목사, 정진석 추기경, 법륜 스님, 자승 스님,故 한경직 목사, 혜민 스님,故 문익환 목사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5명, 개신교 3명, 가톨릭 2명이다. 지난해 조사에 이어 올해에도 10위권 안에 타계한 인사 5명이 올랐다.

이밖에도 불교계에서는 안철수 교수의



故 성철 스님



故 법정 스님



자승 스님



법륜 스님

멘토로 알려진 정도희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보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컸다. 자승스님은 지난해 5위(10.4%지지)에서 7위(6%)로 내려앉았다. 대신故 법정스님이 전년보다 두 단계 오른 2위, 고 성철스님이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또 힐링 열풍을 불러일으킨 혜민스님이 처음으로 종교인 9위에 랭크돼 주목을 받았다.

신종일 기자

## 조계사, 대웅전 해체 유물 공개

조계사(주지 도문)는 8월 14일 경내 안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03년 대웅전 중도리 해체과정에서 발견된 유물 217점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계사가 유물들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뒤 수장고 입고에 앞서 유물을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계사 사적의 역사

를 그대로 간직한 상량문인 '한국불교총본산대웅전상량문(韓國佛敎總本山大雄殿上樑文)'과 '총본산건설소역원(總本山建設所役員)', '총본산건축비각사부담액(總本山建築費各寺負擔額)' 등이 공개됐다.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은 "조계사를 건립한 이유와 총본산 마련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라며 "한국불교 중흥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발견된 상량문(사진 왼쪽)과 조선 황태자 가례식 메달

이밖에도 함께 발견된 유물에는 <금강경> 등 불교경전과 더불어 대한제국 황태자 가례식 메달과 은계, 은수저 등 근대 공예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신종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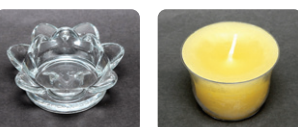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새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삼산화제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범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범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등 7.0f x 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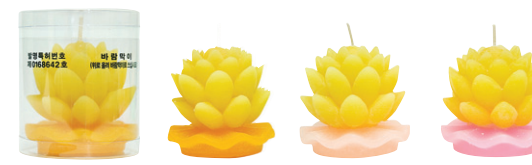
아랑 용 양초 연봉 원기등 7.0f x 34cm



육각초 7.0f x 34



연화 대 9.5f x 11cm, 연화 중 9f x 10cm, 연화 소 7f x 6.5cm



밀납연화 소 7f x 6.5cm



외가바



후리지아



연원향 정.단(소바라)



왕수림



백옥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종매,인성향,대발향,숙향



도자기 인등



인등용 파리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3·6연꽃나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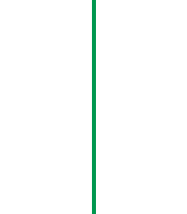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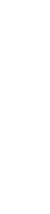
백색



핑크



흰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